

# 군산시 일자리 창출·창업기업 확대 박차

###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센터’ 개관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파일럿 사업으로 개북동 골목길에 조성

군산시가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군산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센터’를 개관했다.

이 센터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파일럿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군산 개북동 골목길(모과쉼터 앞)에 조성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한 센터 건물은 4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된 곳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인큐베이팅센터 1층은 운영단체 사무실과 창업플랫폼, 다목적 회의실로 구성되고, 2층은 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창업지원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마당의 유휴공간을 모과쉼터로 조성해 야외 교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인큐베이팅센터 운영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군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단체가 2020년 10월까지 2년간 운영하게 된다.

이 단체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교육 및 보수교육,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모과쉼터와 느루쉼터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주병선 군산시 도시재생과장은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



군산시는 지난 20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군산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센터’를 개북동 골목길(모과쉼터 앞)에 개관했다. <군산시 제공>

고,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전북도, 블록체인 관련 산업체 육성

### ICT·SW 전문 기업·인재 양성...자금 지원도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관련 산업체 육성에 나선다.

취약한 도내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산업체 기반을 강화해 전문 기업과 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에서다.

도는 우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에는 3천만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때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농생명과학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으로 최대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신규 창업기업이나 다른 지

역에서 도내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전북혁신도시에 건립 중인 테크 비즈센터에 입주권을 줄 계획이다.

또 농생명 SW 융합클러스터사업단의 인재육성 프로그램과정에 블록체인 과정을 신설,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화폐인 ‘전북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블록체인 산업은 뛰어난 보안성과 개방성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귀농·귀촌 현장교육에 참가한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수확한 콩을 앞에 두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정읍시 제공>

## 정읍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본격 추진

### 전북도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사업비 15억 확보

정읍시는 전북도가 공모한 귀농·귀촌 활성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초기단계에 필요한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습농장조성사업은 총 15억원이 투입돼 주택 10동과 5000㎡ 규모의 실습농장

이 들어선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와 침체된 농촌지역에 도시민 유입을 유도,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또 예비 귀농·귀촌인에게는 거주시설과 농지를 일정기간(1년 내외) 임대해주고 농촌생활 적응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시는 빈집리모델링사업, 주택수리비지

원사업 등으로 농가주택을 조성했으나 사용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중장기 대책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룡동 구량마을 1ha의 부지를 확보해 정읍시만의 자립형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사업부지 내에는 먼저 조성된 대규모 농장의 라벤더, 허브 등의 관광농원이 조성 중이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연계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농촌체험과 농업환경 조성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농업발전 이끌

### 민관협치 기구 농업회의소 내년 3월 창립

익산시 농업인 지위 향상과 농업 발전을 이끌 민관협치 기구인 농업회의소가 내년 3월 창립한다.

익산시는 최근 함열읍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축수산업 단체와 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회의소 창립 다짐대회를 열어 설립 계획과 운영방안 등을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 3월 농업회의소 설립을 목표로 민관학계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지난 1월 꾸렸다.

이후 읍면동 설명회, 농업단체 및 농민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지 견학, 임원 선출, 기구 구성 등도 마쳤다.

농업회의소는 민관의 농정 참여, 농업행정 시스템 구축, 농업분야 이해관계 조정, 농정 수립 및 추진, 정책 자문, 농업 연구 및 교육, 공익서비스 등을 맡는다. 전국에 11개 시군에서 농업회의소가 운영 중이다.

최봉섭 익산시 미래농업과장은 “농업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가 내년 3월 창립한다”며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전주시-캠코전북본부, 저소득 취약계층 장기 연체 지원

### ‘신용서포터즈’ 출범

전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빛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와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강희종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을 위한 전주시 신용서포터즈를 출범시켰다. <사진>

신용서포터즈는 시산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캠코가 운영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접수가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활동하며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넓

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캠코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서민의 신용회복을 돕는다.

캠코는 대상자의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 내) 또는 채무조정(최대 원금의 90% 감면)을 지원한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소액 장기연체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지만,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이 빛에서 헤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군, 자율방재단원·공무원 대상 직무능력 향상 교육

고창군이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향상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난 20일 실시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자율방재단원과 공무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진찬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

교육본부장이 자율방재단 활동사례, 자율방재단 임무와 역할, 재난-재해시 행동요령(실습) 등을 중심으로 특강을 했다.

한편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민 393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66주년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6000만원,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